



삼성전자, ISH '디자인플러스 어워드' 2관왕

삼성전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ISH 2025 '디자인플러스 어워드'의 물&효율성 플러스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수상 제품은 200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슬림핏 클라이머트 모노'와 콤팩트한 사이즈의 벽걸이형 '하이드로 유닛 모노'로 EHS 실내기 2종이다. /삼성전자



예탁원 KSD나눔재단, '마음이음 사업' 2.5억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17일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에서 개최된 '마음이음 공모사업 후원 증서 전달식'에서 공모에 선정된 5개 사업에 총 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보경 KSD나눔재단 사무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NH농협은행, 5230만원 상당 NH포인트 기부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NH포인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총 5228만4291원의 기부금이 5곳의 자선단체에 전달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재 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 부회장(왼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한유원-티알엔, 중소벤처기업 판로확대 맞손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한유원)은 지난 17일 티알엔(쇼핑엔티)와 서울 목동 사옥에서 '중소벤처기업 판로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 대표(왼쪽)가 티알엔 한상욱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소라 △운영지원과장 김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은주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이정순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이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연구예산총괄과장 박상민 △연구성과확산추진과장 최문기
-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도재영 △운영지원과장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김민천 △서부지방산림청장 김영혁

최태원 상의 회장, 'APEC 경제인 행사' 현장 점검

경주 방문... 행사 활성화 방안 논의 참가자 숙소, 만찬장 등 직접 챙겨

대한상업은행은 오는 10월 경주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열리는 '2025 APEC 경제인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

APEC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18일 이틀간 경주를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에는 최태원 대한상 의 회장(2025 APEC CEO 서밋 의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이 동행했다.

지난 17일에는 'APEC CEO 서밋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APEC CEO 서밋



오는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열리는 '2025 APEC 경제인 행사'를 위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운데)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은 아태 지역의 경제 리더들이 모여 미래 성장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경주·경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업은행은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APEC 개최

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기 직접 효과는 3조3000억원으로 경제 활성화,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경제·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1000억원으로 분석, 취업 유발효과는 총 2만2634명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자체

간담회에 앞서 APEC CEO 서밋 개최 후보지인 경주 예술의 전당을 방문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환담을 나눈 후 예술의 전당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행사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참가자 숙소, 환영만찬장, 부대행사 예정지 등도 직접 살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iF 어워드 석권... '아이오닉 9' 등 26개 수상

글로벌 무대에서 디자인 경쟁력 입증 제품·커뮤니케이션·UI·UX 등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무대에서 제품·브랜드 등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독일 국제포럼디자인이 주관하는 '202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26개의 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954년부터 매년 시장에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프로젝트 중 디자인 차별성과 영향력을 평가해 부문별 최고 디자인을 선정한다.

올해 현대차그룹은 ▲제품 ▲프



2025 iF 디자인 어워드 제품부문 본상 아이오닉 9. /현대자동차

로페셔널 콘셉트 ▲ 커뮤니케이션 ▲ 실내 건축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 사용자 경험(UX) ▲ 서비스 디자인 등의 부문에서 본상 26개를 받았다.

제품 부문 자동차 카테고리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 9, 디올 뉴 팰리세이드, 이니시움 콘셉트, 기아 EV

3, 제네시스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 등이 본상을 수상했다.

본상 수상작인 아이오닉 9은 전동화 대형 SUV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날렵한 외관과 넓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동시에 품고 있는 보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디올 뉴 팰리세이드는 강인한 인상을 중심으로 측면부에 과감한 비율을 적용하고, 전면부의 DRL과 그릴에 견고한 디자인을 반영해 웅장한 조형미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미래지향적 콘셉트 및 선행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페셔널 콘셉트 부문에서는 제네시스 네오론 콘

셉트, 수소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콘셉트 SPACE가 본상을 거머쥐었다.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술 디자인 역량도 수상으로 이어졌다. 제품 부문 산업 카테고리에서 착용 로봇 '엑스블 솔'가 본상을 수상했고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서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ACR) 서비스'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현대차 피파(FIFA) 여자 월드컵 캠페인, 디올 뉴 썬타페 론칭북, 자동차 딜러를 위한 AD 크리에이터 등이 본상을 수상해 우수한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입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조현상 부회장, 루마니아 투자 '물꼬' (HS효성)

바르나 탄초스 재무부 장관 회동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바르나 탄초스 (Barna Tanczos) 루마니아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만나 투자환경 개선을 협의했다.

루마니아는 한국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로 최근에는 원전, 방산 업체들이 진출을 모색할 만큼 새로운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미팅은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한 바르나 부총리와 루마니아 대표단이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한국기업인 HS효성에 만남을 제안해 성사되었다.

조 부회장과 바르나 부총리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오른쪽)과 바르나 탄초스 루마니아 부총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S효성

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루마니아 투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조 부회장은 "세계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며 투자 매력도 제고를 제안했다. /이승용 기자

백화점협회, 정지영 신임 회장 선임 (현대백화점 사장)

'더현대 서울' 성공 주역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사진)이 국내 백화점 산업의 발전과 유통 기업들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의 제 28대 회장을 맡는다.

한국백화점협회는 18일 2025년 정기 총회를 열고 정지영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정 사장은 1991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한 이후 30여년간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 몸담아 온 마케팅 전략 및 기획 등으로, 지난 2012년 영업전략 담당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울산점장과 영업전략실장, 영업본부장을 거쳐 2024년부터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특히 정 사장은 오프라인 리테일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더현대서울'의 성공적 안착을 주도한 인물이다.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통한 힐링)'라는 차별화된 공간 혁신과 K패션, K팝, 글로벌 IP 등 현대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끊임 없이 선보이는 경험의 가치 극대화도 더현대 서울을 글로벌 쇼핑 랜드마크 반열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정 협회장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